

김호기의 '사회의 눈'



세월호 특별법과 안전한 대한민국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올해 가장 큰 사건은 아마도 세월호 참사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4월 16일에 일어난 이 참사를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 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지난 달 30일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0여 일이 지난 다음에야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한 우리 정치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참사가 왜 일어났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올바른 사실 규명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겨준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가 참사의 원인 및 책임 규명이라면, 다른 하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을 소홀히 해 왔는지를 생생히 증거한 만큼 '안전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 정신의 하나로 부각됐다. 잘 사는 나라, 민주화된 나라에 이어 안전한 나라 만들기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선 세 가지 과제가 중요하다. 첫째, 정부는 국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처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론타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 때 두 가지를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하는 게 하나라면, 재난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게 다른 하나다. 정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일이 다른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늘 명심해야 한다.

둘째, 안전 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태도와 문화도 변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이다. 의식주를 포함한 개인적 생활이든 직업을 포함한 사회생활이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안전불감증이다. 안전은 이를 중시하는 이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지, 이를 도외시하면 예기치 않는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이 점에서 자연적 위험이든 인위적 위험이든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 안전을 경제적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삶의 기본조건으로 인식하는 안전의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거시적 맥락에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패러다임은 무한 경쟁·적자생존·약육강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시장 만능주의였다. 시장 만능 패러다임에서 안전과 생명은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 만능 패러다임을 생명 존중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에만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다. 생명 존중 패러다임은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는 '한 국민' 정치, 시장에 대한 정부와 적절함 개입이 이뤄지는 조정 시장경제, 국가-시민사회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연대적 개인주의, 그리고 인간적이고 민주적

인 세계화를 모색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200여 일은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 누구보다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의 마음은 더없이 참혹했을 것이다. 생존자와 그 가족 역시 참담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의결되면 곧 출범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올바르게 규명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교훈을 이끌어 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되뇌었던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여전히 귀에 쟁쟁하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말에 담긴 의미 중 하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있다. 어떤 약속이든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소중한 약속들을 너무 쉽게 망각하면서 살아 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약속만은 제대로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이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종교칼럼

소록도 제비선창과 교황님



김연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록도본당 주임신부

옛날 소록도 국립병원은 강제 수용시설이었습니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 철저히 격리를 시켰던 곳입니다. 그래서 환선환우들이 배로 소록도에 처음 들어올 때 제비선창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연 한선환우들의 전용부두입니다. 이 선창이 일제 강점기 시대 때부터 1984년까지 이어져 오고 있던 곳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미국NBC 방송은 이렇게 취재를 하였습니다.

"한국 소록도에는 배타고 대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직원전용부두이고 다른 한 곳은 한선인들의 전용부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한선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한선병은 DDS라는 약 때문에 이미 극복이 된 병이고 전염 가능성이 없는데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병원직원들은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갈 때는 그들과 다른 곳을 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전히 같은 배는 탈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소록도병원장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합니다. 앞으로 제비선창을 폐쇄하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두를 한선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정신사적 변화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확실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의사는 간호사든 환자든 육지에 나갈 때는 같은 배를 타고나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평등을 의미하고 형제를 의미합니다. 운영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 환우분들은 제비선창 폐쇄를 교황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소록도 방문은 소록도 정신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소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섬이 교황님 방문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곳 환우분들은 교황님 방문 자체가 치유로 다가왔습니다. 버림받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이 방문의 의미를 알아듣습니다. 개신교 신자들마저 목사님의 그 언타가운 선언 즉 '마귀의 두목이 왔으니 밖에 나가서 말라'라는 말에도 밖으로 나왔고 교황님의 따뜻한 미소

와 안수를 받았습니.

소록도에서 가장 먼저 교황님 안수를 받은 사람은 목사님 말씀 어기고 밖으로 나왔던 개신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종교와 사상을 떠나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받은 날이었습니다. 교황님 방문 이후로 소록도에 자원봉사자가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정부지원도 많아졌습니다. 잊혀진 섬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섬이 되었습니다. 소록도에서 보좌신부로 있을 때 교황님의 사망소식을 듣고 신자들이 장례 미사를 봉헌하는데 청원의 기도 시간에 한 신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도 우리를 버렸고 친척들도 우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제자인 교황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 교황님이 이제 당신한테 갔으니 잘 봐 주십시오."

감동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는 것일'

기고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도시로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년 7~8만대에 불과했던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졌다. 특히 승용차의 증가가 폭발적이었고, 지금도 증가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승용차 증가와 더불어 도시에 크고 작은 도로가 확장되거나 신설되었고, 이를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전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교통문제'는 도시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숙제가 되어있다. 사람들은 일상화된 교통체증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행정당국은 체증해소를 위해 도로 확장이나 신설을 거듭해 왔다. 자동차 증가→체증발생→도로 확장 혹은 신설 등을 반복해 왔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도시 교통문제는 우리 도시만의 현상이 아니라 도시화·산업화를 추구하고 있는 세계 각국 도시의 공통 문제일 것이다.

이런 답답함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1990년대 후반 서구에서 '9월22일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단 하루만이 라도 승용차를 세워두고 생활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세계 각 도시로 전파되었고,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광주에서도 전개되고 있으며 아직 소리가 크지 않다. 작년 수원에서는 행궁동이란 지역에서 1개월 동안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차 없는 날' 캠페인이 진화하여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기도 했고, 국내 도시들도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차 없는 날' 혹은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은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 중심의 도시로 향하려는 전환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승용차에게 빼앗겨 버린 도시의 주체성을 되찾고, 자연을 점막하지는 것이다. 시민들이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 거리는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가능하다. 불편하고 부담하다면 행정당국에 항의해야 한다. 행정당국도 대중교통의 활성화, 자전거의 귀환, 걷고 싶은 거리 등 관련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

다. 지금까지 승용차를 배려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전거 대중교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정책의 변화도 꾀해야 한다. 런던이나 스톡홀름,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는 승용차 운행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불편하다. 그랬을 때 도시에서 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 자전거, 택시, 승용차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차 없는 날'이 지향하는 도시의 생태교통 혹은 녹색교통의 모습이다.

자동차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이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그들이 배출하는 배출가스 중에는 최근 문제가 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PM10, PM2.5도 포함되어 있다. WHO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승용차 중심 도시의 미래는 암담하다. 사람과 자연이 중심인 도시로의 전환이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다. '차 없는 날'의 메아리가 도시 전역,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社說

전남 수도로 현실화 앞서 누수부터 잡아야

정부의 지방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에 따라 수도요금에 현실화될 경우 전남의 인상 폭이 서울의 77배나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후 상수도관이 많은 전남은 수도물이 도중에 졸졸 새면서 누수율과 수도요금 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5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산원가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t당 3원이 오르면 568원인 반면 전남은 이의 77배나 되는 t당 231원이 올라 1045원으로 추정됐다.

또 지난 2012년 말 기준 서울시의 수도요금은 t당 564.6원으로 생산원가는 630.7원이었다. 이에 비해 전남은 t당 813.7원의 수도요금을 냈으며 생산원가는 무려 1161.2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 차이는

누수를 때문이다. 서울시는 누수율이 3.1%에 그쳤지만 전남은 전국 최상위권인 23%였다. 물 100t을 보내면 77t만 가량까지 도달하고 나머지는 졸졸 샌다는 뜻이다. 누수율이 48.9%인 진도군은 생산원가가 t당 2200원이나 됐다.

누수율이 높은 것은 수도관이 갈수록 낡아지는 탓이다. 전남도내 상수도관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3455km로 총 연장의 25.5%에 이른다. 수도를 누수로 인한 손실액만 매년 3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전남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일반 재정으로는 수도사업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 상수도관 정비는 업무도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노후관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해 누수부터 바로 잡고 생산원가를 낮춰줘야 할 것이다.

광주 대형병원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니

조선대학교 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등 지역 대형병원 4곳에서 석면 성분이 포함된 건축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선대병원은 입원실에서도 석면 성분이 검출돼 환자와 병원 직원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날 22~23일 조선대 병원 등 광주지역 4개 병원과 부산, 대구, 대전 등지의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육안 조사와 시료 채취 조사를 한 결과, 16곳 모두 석면 성분이 포함된 천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천장재에선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종류인 백석면과 갈석면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석면 성분의 농도는 2~7%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 농도인 0.1%를 20~70배나 초과한 것이다. 병원 직원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들 병원은 석면 성분이 나

온 천장재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돼 있어 서둘러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조선대병원에선 입원실 벽면에도 석면 성분이 검출돼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석면 성분을 장기간 흡입하면 그 가루가 폐에 쌓여 석면 폐증과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은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따라서 병원 측은 조속히 천장재를 천장재로 교체하고, 병원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석면 제거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조선대 병원은 천장재는 물론 입원실도 뜯어고쳐야 한다. 근무하는 직원들도 문제지만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갔다가 또 다른 심각한 병을 얻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 민들이 이들 대형병원을 많이 찾는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無等鼓

절판된 책을 구하는 건 고생이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타게 찾았던 책은 신영복 선생의 영인본 '염서다'. '소금자 블루스' '오달자의 봄'으로 이어지는 김수정 만화 시리즈도 꼭 갖고 싶었던 책이다.

사진집 중에서도 애호가들이 꼭 갖고 싶어하던 책이 있었다. 전몽각의 사진집 '윤미네 집'이다. 사진집은 1990년 출간 후 절판됐다. 책을 찾아 한책방을 뒤지는 이들이 많았고, 20년만인 2010

년 다시 발견됐다. '윤미네 집'(포토북 펄먼)은 내로라하는 사진 작가의 책이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가였던 고(故) 전몽각 성근관대 교수가 취미로 찍은 사진 모은 사진집이다. 책의 부제인 '윤미 태어나서 시집가던 날까지'처럼 말 그대로 큰 딸 윤미가 세상에 나와 1964) 결혼하기까지(1989) 26년간 '아빠'가 찍은 사진을 엮었다.

윤미네 집의 작은 전기를 만들고 싶었던 아빠는 '눈도 뜨지 않은 갓난 아이, 첫물 맛있게 빠는 모습, 국민학교 들어갈 때, 대학 합격 발표, 그리고 윤미의 혼인 날을 받아둔 모습' 등을 사진에 담았다. 흑백 사진들은 깊은 울림을 준다. 윤미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감독은 6살 소년(누나) 역은 감독의 딸이 아니라 캐스팅 해 12년

간 촬영했다. 아빠 역의 에단 호크 등 배우들은 매년 1주일 정도 만나 15분 분량의 영화를 찍어 완성했다. 영화에는 12년 시간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화의 마지막 대사. "순간을 붙잡으라는 말이 있잖아.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 순간이 우리를 붙잡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 같아. 시간은 영원하잖아. 늘 지금이 순간이 되는 거지."

오래 전에 다 소년과 소녀였던 이들, 이제는 소년과 소녀의 부모가 된 이들에게 강추하는 영화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F A X 227-950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채 육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